

## 시라쿠모노이케

시라쿠모노이케라는 이름은 맑은 날 하늘이 연못에 비치는 모습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. 원래는 종교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였음을 근처에 있는 수수밭과 편백나무 신목으로 알 수 있습니다. 자연적인 연못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공 연못으로, 400여 년 전에 농업용 저수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. 현재 시라쿠모노이케는 텐트 구역, 화장실, 조리장, 레크리에이션용 오픈 공간, 대여 보트가 완비된 캠핑장이 연못을 둘러싸고 있습니다.

시라쿠모노이케에 사는 잉어(*Cyprinus carpio*)를 보호하기 위해 수영이나 연못에 들어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. 숲속에서는 가슴부분의 밝은 노란색이 특징인 황금새(*Ficedula narcissina*)나 지저귀는 소리라기 보다는 날갯소리인 것처럼 우는 쇠딱따구리(*Yungipicus kizuki*) 등과 같은 들새를 볼 수 있습니다. 연못가에는 나무 열매를 맺는 나무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, 여름에는 꽃을 피우고 가을에는 밝은색 열매를 맺어 주위에 서식하는 새와 동물들을 유혹합니다.

기누가사야마(870m)까지 가는 길은 운젠에서도 특히 쉬운 코스로, 다 오르면 운젠 온천가의 마을 풍경, 운젠 산악지역, 다치바나완의 웅장한 절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.